

##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글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과 글자읽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ules and  
*Kulja* Reading in Korean-Chinese Children\*

윤혜경(Hyekyung Yoon)<sup>1)</sup>

박혜원(Hyewon Park Choi)<sup>2)</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eal *Hangul* acquisition processes in Korean-Chinese children who grow in a horizontal bilingual environment. In this experiment Grapheme substitution/deletion tasks and sensible/non-sensible *Kulja* reading tasks were administered to 3-, 4-, 5- and 6-year-old Korean-Chinese children growing up in a bilingual environment. Results were that Korean-Chinese children showed similar patterns of *Hangul* acquisition processes to Korean children but acquired grapheme-phoneme(G-P) correspondence earlier than Korean children. *Hangul* acquisition rates were 41.7%, 45.7%, 53% and 92.7% at age 3, 4, 5 and 6, respectively. Both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showed higher sensitivity for the final consonant than for the initial and middle consonants. Correlation between phoneme perception and reading was only significant among 6-year-olds in non-sensible *Kulja* reading tasks. Training in transforming ideographic Chinese to a phonetic system could effect early acquisition of G-P correspondence in Korean-Chinese children.

**Key Words** : 이중언어(bilingual) 중국 조선족(Korean-Chinese), 한글획득과정(*Hangul* acquisition processes), 자소-음소 대응규칙(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ule), 글자(*Kulja* :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한글(*Hangul* : Korean written language) 음소인식(phoneme awareness).

### I. 서 론

언어는 크게 구어(1차 언어)와 문어(2차 언어)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언어인 구어는 적절한 언어적 경험이 주어진다면 연령과 더불어 비교적 저절로 발달하게 되지만 2차 언어인 문어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인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sup>2)</sup>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전공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Ulsan 680-749, Korea E-mail : hyewonc@mail.ulsan.ac.kr

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그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더욱이 문자학습은 말소리인 구어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이므로 구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부모로부터 듣고 자라면서 모국어로 습득하지만 또한 중국어를 사회공통어로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중국어와 조선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한국어-중국어의 이중언어 발달연구에 매우 적합한 대상이 된다. 특히 중국어의 글자인 한자는 표의 문자이며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표음문자로 그 언어의 체계가 매우 대조적이어서 언어학적인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은 자녀가 어릴 때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쓰다가도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글자를 배우고 학습하게 될 때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자란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모국어와 중국어의 문자인 한글 및 한자의 터득 과정 역시 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모국어 문자인 한글 터득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문자는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음성언어를 시각적으로 바꾸어 주는 서사기호(graphic symbol)이다(이익섭, 1992).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시각적 상징인 문어와 청각적 상징인 구어 사이에 존재하는 대응관계에 의거해서 글자를 소리로 전환하는 인지적 작업이다(윤혜경, 1997). 한글은 한국어라는 청각적인 말을 시각적인 글로 바꾸어 주는 문자인 것이다. 언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규칙체계를 표기법(orthography)이라 한다(이익섭, 1992). 문자가 말소리의 의미나 그 발음을 표상하게 되는데, 전자를 표음표기 후자를 표의표

기라 한다. 문자에 따라서 표음이나 표의표기 중 어느 한 쪽을 취하게 된다. 영어나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표음문자의 경우 문자와 소리 사이의 대응은 여러 수준에서 가능하다. 자소와 음소간의 대응, 글자와 음절간의 대응 등 여러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한글과 같은 음소문자의 경우는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터득하는 것이 읽기획득의 관건이다.

비록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획득하는 것이 읽기의 목표이지만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글자와 음절이 해체되어 그 구성요소인 자소와 음소가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아동들에서는 음소가 음절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말소리에서 단어를, 단어에서 음절을, 음절에서 음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음운적 변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권오식·윤혜경·이도현, 2001).

윤혜경(1997)의 연구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터득과정에서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음절에서 음소가 인식되고 이 음소가 자소와 대응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실험에서는 자소대치, 자소탈락, 자소첨가과제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음운인식능력을 다룬 많은 연구들(Badley & Bryant, 1985; Fox & Routh, 1984; 김선옥·조희숙, 2004; 김현자·조증렬, 2002; 홍성인·배소영, 2004)에서 사용한 음소 분석이나 음소합성 과제들이 전적으로 청각적인 과제여서 어린 아동들의 과제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또한 과제수행시의 기억부담이 컸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면서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음소와 자소의 대응능력을 검토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윤혜경(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소와 음소의 대응 시작 시기는 음절의 복잡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4세 정도에서 음소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자소와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소-음소 대응규칙을 적용해야만 읽을 수 있는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 과제의 수행결과를 통해서 보면 한국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91.0%의 글자읽기 정반응을 보여 자소-음소 대응규칙이 거의 터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소-음소 대응관계의 터득과정은 일음절의 초, 중, 종성의 자모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음소와 대응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글자에서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의 자소가 동시에 해체되어 각각 음소와 대응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초성과 중성은 항상 통합되어 그 자체 받침없는 이성음절인 개음절이 되고 여기에 종성 덧붙여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초성+중성'과 종성으로 먼저 분해되고 이에 각각 소리가 대응된다. 세 번째는 글자에서 가장 앞부분인 초성이 가장 두드러져 이에 소리가 대응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아동마다 자기 나름대로 위의 세 과정 중의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소대치과제를 사용한 연구(윤혜경, 1997; 윤혜경·권오식, 1999)와 단어읽기유추과제를 사용한 연구(윤혜경·권오식, 1999; Yoon, Bolger, Kwon, & Perfetti, 1999, 2002)들은 자소-음소 대응과정에 대한 네 가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혜경(1999)은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 대치, 탈락되어야 하는 자소의 위치에 따른 정반응 수행을 보면 초성이나 중성보다 종성의 대치, 탈락의 정반응 수행이 높았으며 연구대상 중 최조연령인 4세반 아동에서도 종성대치의 정반응 수행은 50%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성음절(C<sub>1</sub>VC<sub>2</sub>)이 먼저 음절체(C<sub>1</sub>V)와 말미자음(C<sub>2</sub>)으로 분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글자의 특성 즉 '초성+중성(C<sub>1</sub>V)이 시각적으로 집단화되기 용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윤혜경과 권오식(1999)은 4, 5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일음절의 영어자모로 구성된 단어(예를 들어, bag 등)를 사용하여 자소대치/탈락과제를 실시하였다. 영어단어는 풀어쓰기를 하므로 음절체(C<sub>1</sub>V)부분이 두드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영어단어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한글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종성대치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윤혜경과 권오식(1998), Yoon, Bolger, Kwon, & Perfetti(1999, 2002)의 연구는 Goswami(1986, 1988, 1993)가 사용한 단어읽기유추과제를 사용하여 아동이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 읽을 줄 아는 단어의 음절체(C<sub>1</sub>V)부분에 기초하는지 각운(VC<sub>2</sub>)에 기초하는지 살펴보았다. Goswami의 연구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인 아동들은 읽기유추과제에서 각운 우선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ug'라는 단어를 그 발음과 함께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rug', 'mug' 등(각운유추) 혹은 'bun', 'bus' 등(음절체 유추)의 단어를 읽어보도록 하였을 때 미국아동들은 전자의 각운유추에서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윤혜경과 권오식(1999), Yoon, Bolger, Kwon, & Perfetti(1999, 2002)의 연구는 한국 아동은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 음절체 부분에 기초한 읽기유추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잡'이라는 단서단어를 발음과 함께 제시하고 '잘'(음절체유추), '샵'(각운유추), '쩍'(C<sub>1</sub>C<sub>2</sub>유추) 그리고 '감'(모음유추)이라는 무의미단어를 제시하고 읽어보도록 하였을 때 '잘'과 같은 음절체부분이 같은 단어를 가장 잘 읽었다. 자소대치과제나 단어읽기유추과제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아동들이 문자터득의 초기 시기에 3성음절(C<sub>1</sub>VC<sub>2</sub>)을 우

선 음절체(C<sub>1</sub>V)/말미자음(C<sub>2</sub>)으로 나누어 분절하고 이에 발음을 대응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또한 이러한 글자 해체양상은 우리말의 시각적 특성보다는 음운적 특성 특히 한국어의 음절의 구조가 영어와는 달리 음절체와 말미자음(C<sub>1</sub>V+C<sub>2</sub>)이라는 사실(이광오, 1995; Yoon, Bolger, Kwon, & Perfetti, 2002)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어린 아동들의 한글 터득과정에서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알아가는 과정과 그 발달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자료를 한국 아동의 수행과 비교함으로써 아동의 한글 터득과정에 미치는 이중언어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언어, 문자 특성이 다른 언어이다. 맹주역(1985)은 중국어는 표음기능이 미약한 한자를 쓰는 언어이므로 표음문자인 한국어에 비해서 발음학습이 어렵고 또한 중국어의 상용어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음절어는 그 청각영상이 매우 간단하여 짧은 순간 사라지므로 부정확하게 발음하면 다음절어보다 알아듣기 힘들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의미변별 기능을 가진 성조 등 한국어에는 없는 음성현상들이 존재하므로 중국어에서는 발음의 중요성은 다른 언어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문자특성으로 구어가 의미를 표상하는 표의적 표기, 발음을 표상하는 표음적 표기 중 한자는 표의적 표기이며 한글은 표음적 표기라는 차이가 있다.

음운특성이나 표기특성이 다른 두 언어의 경험은 아동의 문자터득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언어의 경험은 언어적 변별성이나 음운적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언어의 변별을 위해서라도 음운적 민감성, 예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어 경험은 성조나 단음절

인식을 위해서 음운적 예민성을 발달시켜 문자터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표기법이 서로 다른 두 언어의 문자표기를 학습을 한다는 것은 단일 문자학습 보다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혜경(1997)의 연구에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과제를 사용하여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글 터득과정에서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 양상을 검토하고 또한 자소-음소 대응 능력과 한글 글자읽기와의 관계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중국 심양 조선족 소학교 1년생(만 6세) 40명, 5세 39명, 4세 40명 그리고 3세 아동 37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조선족부모의 자녀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었다. 조선족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서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와 중국어 사용능력이 비슷하다고 답한 부모가 56.6%이며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능숙하다고 답한 부모는 15.1%였다. 또한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능숙하다고 여겨지는 28.3%의 경우도 조선족 어린 아동의 주 양육 상호작용이 한국어로 이루어지므로 이들 조선족 아동들은 완벽하게 한국어-중국어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이귀옥, 이혜련, 2004).

### 2.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아동들의 한글 자소-음

소 대응능력의 발달과정을 밝히고 또한 자소-음소 대응능력과 글자읽기와의 관계를 보고자 윤혜경(1997)에서 사용하였던 자소대치과제와 쓰이는 글자/쓰이지 않는 글자읽기과제를 사용하였다.

### 1) 자소대치/탈락과제

이 과제는 일정한 카드에 쓰여진 한 글자(예, 강)를 보여주고 이 글자를 읽어준 다음 (/강/)으로 읽는다, 이 글자와 일부분만이 다른 글자(예 : 당, 경, 갈, 혹은 가)를 불러주고 이 다른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글자의 초성, 중성의 세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바뀌거나 탈락되어야 하는지 찾는 과제이다. 이 과제에서 읽어준 글자의 음과 불러준 음절의 글자의 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불러준 음절을 떠올리고 이를 해체하여 그 구성성분인 음소를 인식해서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제는 기존의 음소분석이나 음소합성 과제보다 아동의 과제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또한 과제 수행시의 기억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아동의 음소인식능력, 음소와 자소의 대응능력을 검토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제 수행시 제시된 글자와 불러준 글자간의 시각적 비교에 의해서 수행할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대치 또는 탈락되어야 할 자소의 위치에 따라서 초성대치, 중성대치, 종성대치 그리고 종성탈락의 네 조건으로 나누어졌다. 각 조건 당 세 문제가 주어졌다.

### 2) 글자읽기과제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완전한 적용은 자소-음소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자소의 음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음소들을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쓰이는 글자는 각 글자의 소리값 암기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쓰이지 않는 글자의 소리값은 각 자소에 해당하는 음소들을 일정한 결합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쓰이는 글자/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의 수행을 검토함으로써 자소읽기의 완전한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과제에 사용되는 글자들은 한글의 여섯 가지 글자구조 각각에서 뽑은 19쌍의 글자가 사용되었다. 이 19쌍의 글자 중 10쌍은 쓰이는 글자(예 : 다, 자, 팔, 된 등)이며 9쌍은 쓰이지 않는 글자(예 : 다표, 자썩, 뷁 등)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심양에 있는 소학교와 부속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아동이 확실하게 한국말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자 또한 라포 형성을 위하여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후 한글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부분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본 실험에서 아동이 해야 할 자소대치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각 아동에게 자소대치과제가 먼저 실시되고 이어서 글자읽기과제를 실시하였다. 초성대치, 중성대치, 종성대치 및 종성탈락의 조건은 무선으로 제시하고 각 과제에서의 세 문제도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글자읽기과제에서는 쓰이는 글자 20개, 쓰이지 않는 글자 18개의 38장의 글자카드를 섞어서 무선적으로 제시하고 읽을 수 있는 것만 소리내어 읽도록 하였다.

### Ⅲ. 연구결과

조선족 아동의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발달양상을 검토하고 조선족 아동의 한글 글자읽기능력의 발달을 검토하고자 조선족 아동의 자소대치/탈락과제와 글자읽기과제에서의 수행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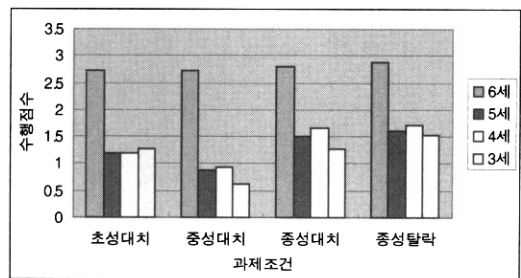
#### 1. 자소대치/탈락과제의 수행분석

조선족 3, 4, 5 그리고 6세 아동들의 삼성음절 글자를 가지고 실시한 자소대치, 탈락과제의 수행을 살펴보면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행이 향상되어 3세에서 41.7%, 4세에 45.7%, 5세에 53% 그리고 6세에 92.7%였다( $F(3,152)=28.477, p<.000$ ). 네 연령집단 간의 수행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평균치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6세 아동과 5세( $p<.000$ ), 4세( $p<.000$ ), 3세 아동집단( $p<.000$ ) 간의 수행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과제조건에 따른 수행을 보면 중성탈락, 중성대치조건에서 수행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초성대치, 중성대치 수행의 순서였다( $F(1, 152)=7.387, p<.007$ ). 또한 각 조건의 수행을 연령별로 보면 소학교 1학년인 6세 연령의 아동들은 초성, 중성, 중성대치 및 중성탈락조건에서 동일하게 91-97%의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며, 4, 5세 아동에서는 중성대치, 탈락조건에서의 수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성대치, 중성대치의 순이었다. 3세 연령의 아동에서는 중성대치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이며 초성대치, 중성탈락 그다음이 중성대치의 순으로 수행이 좋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과 과제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3, 152)=2.484, p<.063$ ).

<표 1> 조선족 아동들의 연령별 자소대치, 탈락조건 수행 평균(표준편차)

연령	초성대치*	중성대치	중성대치	중성탈락	합계
6세	2.73(0.75)	2.73(0.75)	2.80(0.61)	2.88(0.52)	2.78
5세	1.18(1.14)	0.87(1/20)	1.51(1.27)	1.62(1.33)	1.59
4세	1.20(1.24)	0.93(1.16)	1.65(1.39)	1.70(1.34)	1.37
3세	1.27(1.34)	0.62(1.23)	1.27(1.26)	1.54(1.32)	1.25
합계	1.67	1.29	1.88	1.94	



<그림 1> 연령별 자소대치, 탈락과제에서의 수행

네 과제조건 중 어느 조건 간에 수행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성대치와 중성대치 조건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F(1,152)=2.131, p>.05$ ), 중성대치와 중성탈락조건 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F(1,152)=2.592, p>.05$ ). 그러나 초성대치와 중성대치( $p<.05$ ), 중성탈락( $p<.05$ ), 그리고 중성대치와 중성대치( $p<.01$ ), 중성탈락( $p<.000$ )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의 경우 초성, 중성, 중성의 세 부분 중 중성처리가 다른 경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족 아동들의 음소 인식과 자소와의 대응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아동들은 3세 경부터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음소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점차로 4, 5세가 되면서 그 능력이 향상되어 45.7% 53.0% 정도였다가 6세 경에는 92.8%에 달한다. 또한 자소와 음소가 대

응되는 과정을 보면 중성대치나 중성탈락의 중성처리 부분이 초성, 중성부분의 대응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그 후에 초성, 중성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 2. 한글 글자읽기과제의 수행분석

쓰이는 글자는 각 글자의 소리값 암기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쓰이지 않는 글자의 소리값은 각 자소에 해당하는 음소들을 일정한 결합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의 수행을 검토함으로써 자소읽기의 완전한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연령집단별 글자읽기 과제 수행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를 보면 소학교 1학년인 6세 아동들은 쓰이는 글자는 물론이고 쓰이지 않는 글자도 90% 이상 읽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4, 5세 아동들은 쓰이지 않는 글자(11-12% 정도)는 물론이고 쓰이는 글자읽기 수행도 저조하여 21-23% 정도를 보였다( $F(2, 116)=2211.975, p<.000$ ). 이 결과는 조선족 4세 아동은 물론이고 취학 전인 5세 정도의 연령에서도 쓰이는 글자 읽기는 물론이고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활용정도가 매우 저조하며, 그러다가 6세인 소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이 되면 자소-음소 대응규칙을 이해와 활용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이 대응관계를 활용하여

<표 2> 연령별 글자 읽기 과제에서의 읽기 정반응 백분율

연 령	쓰이는 글자	쓰이지 않는 글자
6세	96.60	90.17
5세	23.85	12.56
4세	21.50	11.56

\* 3세 아동은 글자읽기과제를 실시하지 않음.

<표 3> 연령별 음소인식\*과 한글 글자읽기간의 상관관계

연 령	쓰이는 글자	쓰이지 않는 글자
6세	.239	.478**
5세	.544	.507**
4세	.296	.240

\* 음소인식 점수는 자소대치/탈락과제의 수행총점임.  
\*\* $p<.001$

한글 자모로 구성된 어떠한 글자라도 거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 연령간의 쓰이는 글자,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수행에 대한 사후 차이 검증 결과 6세 연령과 5세( $p<.000$ ), 4세( $p<.000$ ) 집단 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으며 4세, 5세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조선족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과 아동들의 한글 글자읽기 능력과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고자 글자읽기과제의 수행과 자소대치/탈락과제 수행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는 불러주는 글자의 음절을 떠올리고 제시된 글자의 음과 비교하여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하므로 음운인식 특히 음소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소대치과제의 네 조건의 수행을 모두 합한 것은 음소인식의 총점으로 하여 쓰이는 글자,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 수행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3>을 보면 소학교 1학년인 6세 아동에서는 음소인식 능력은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 수행하고만  $r=.478$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2$ ). 5세 아동에서는 음소인식능력은 쓰이는 글자읽기,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와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4세 아동에서는 음소인식능력은 쓰이는 글자읽기,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와 모두 그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IT 산업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화(globalization)가 되고 정보가 교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언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어외에 영어등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어는 본국의 인구와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화교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중국어학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집단인 중국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박혜원·박민정, 2005; 박혜원·이사라, 2004; 윤혜경·박혜원, 2005c)는 이중언어 학습과 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의의를 지니는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 터득과정에서 자소와 음소가 대응하는 과정과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소-음소 대응능력과 한글 글자읽기와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족 3, 4, 5세 그리고 소학교 1학년인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소대치/탈락과제와 한글 글자읽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의 수행분석을 통하여 조선족 아동들이 한글 글자의 자소와 음소 대응능력의 발달을 살펴본 결과 3세 경부터 41.7%의 낮은 정도이지만 음소를 인식하여 자소와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4, 5세가 되면서 점차 그 능력이 향상되다가 6세 경에는 92.8%의 천정 수준에 도달하였다.

조선족 아동의 한글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가장 먼저 해체되어 자소와 음소가 대응되

는 부분 등을 알아본 결과 종성대치나 종성탈락의 종성처리 부분이 초성, 중성대치보다 우수하여 초성, 중성부분의 대응보다 종성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그 후에 초성, 중성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의 수행을 검토함으로써 자소-음소 대응관계 활용의 완전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조선족 4세 아동은 물론이고 취학 전인 5세에서도 쓰이는 글자 읽기(23.85%)는 물론이고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12.56%) 수행도 저조하여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활용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6세인 소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이 되면 자소-음소 대응규칙 활용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이 대응규칙을 활용하여 한글 자모로 구성된 어떠한 글자라도 거의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조선족 아동의 한글 글자읽기 능력과 음운 인식 능력과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고자 글자읽기과제의 수행과 자소대치/탈락과제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학교 1학년인 6세 아동에서 음소인식 능력은 쓰이지 않는 글자 읽기 수행하고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5세 아동에서는 쓰이는 글자읽기,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와 모두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4세 아동에서는 음소인식능력은 쓰이는 글자읽기,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와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조선족 아동 대상의 결과를 윤혜경(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아동의 자소-음소 대응과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 중성부분에서의 음소대응이 초성, 중성부분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후 초성, 중성부분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자소대치/탈락과제의 수행 수준도 한국 아동들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중국어의 경우 받침에 해당하는 종성이 한국어만큼 발달되



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자인 조선족 아동들에서도 종성에 대한 민감도는 동일한 모습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종성 처리 우선의 효과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모두 음절체(‘초성+중성’ 부분)와 말미자음(중성부분)의 음운구조라는 연구결과(윤혜경·박혜원, 2005a)와 잘 맞는 모습이다. 조선족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만약 중국어,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상이하다면 풍부한 언어경험은 조선족 아동의 음운인식이나 자소-음소 대응관계 터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족과 조선족 대학생 대상의 음운유사성 판단에서 보면 두 언어의 음운구조가 음절체+말미자음의 동일구조임으로 조선족 아동들의 이중언어 경험이 구어, 문어의 처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 아동들이 한글 자소-음소 대응규칙을 알아가는 과정은 한국 아동과 유사하지만 조선족 아동들에서는 자소-음소 대응을 위한 글자, 음절의 해체가 3세경에 이미 가능하다는 결과와 소학교 1학년인 6세 경에는 92%를 넘는 천정수준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한국 아동들에서 4세경에야 해체능력이 보이며 초등 1학년인 6세의 88% 수준과 비교하여 보면 1년 정도 이른 시기에 해체능력이 출현하여 더 먼저 천정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족 아동들이 이중언어 경험으로 음운인식 특히 음소인식 능력의 발달이 한국 아동보다 빠르다(윤혜경·박혜원, 2005b)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양상이다.

조선족 아동들의 자소-음소 대응관계 인식능력이 한국 아동들 보다 1년 정도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활용하여 글자를 읽는 능력은 한국의 어린 아동과 상당히 다른 모습

을 보인다. 조선족 아동들은 5세까지도 글자읽기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가 소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90%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아동은 사회적인 조기교육의 분위기 속에서 특히 한글 문자교육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키는 까닭에 4, 5세 정도에도 어느 정도 글자, 특히 쓰이는 글자는 암기에 의해서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한글 문자교육이 소학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6세 연령 이전에는 글읽는 능력이 매우 저조하다가 5, 6세경에는 음운인식 능력이 거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윤혜경·박혜원, 2005b)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 조차도 거의 읽을 수 있는 읽기 능력이 급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자소-음소 대응관계 능력의 발달시기가 한국의 아동보다 1년 정도 더 빠르고 또한 아주 짧은 기간의 정규 교육으로 매우 빠르게 한글을 완전하게 터득하게 된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글 문자터득 특히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풍요로운 언어 환경으로부터 조기에 음운인식능력을 발달시키면 자소-음소 대응관계의 빠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중국어, 한국어의 풍요로운 언어적 환경에서 자란 관계로 많은 언어적 자극을 받았고 특히 이런 상이한 언어를 변별해야 하는 상황은 언어적 민감성 특히 음운인식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윤혜경·박혜원, 2005b) 두 번째, 아동의 연령이 5, 6세 정도가 되면 아동의 시각적, 청각적 분석능력이 갖추어 지므로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문자터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 아동들도 중국문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 발음을 표기하는 병음법을 필수적으로 학

습하게 되며 이러한 중국문자에서의 병음법 학습이 한글의 자소-음소 대응관계 인식능력을 향상시켰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소-음소 대응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음운인식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짧은 문자교육으로도 자소-음소대응규칙을 활용하여 어떠한 글자라도 읽게 되므로 한글이 매우 빠르게 터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음운적 특성이나 표기적 특성이 다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 가지 언어를 경험하는 것은 구어 상으로 이중언어능력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문자터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의 음운적 특성은 음운적 민감성이나 음운인식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이것이 또한 한글의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인식하고 터득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 문자교육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이 5, 6세 정도가 되면 아동의 시각적, 청각적 분석능력이 갖추게 되므로 중국에서의 병음법에 해당하는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효율적인 한글 교육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오식 · 윤혜경 · 이도현(2001). 한글 읽기발달의 이론과 응용.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1), 211-227.
- 김선옥 · 공숙자 · 조희숙(2004). 음운처리과정이 4세와 5세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 37-56.
- 김현자 · 조증렬(2001). 학령전 아동에서 음운인식, 시지각 및 한글읽기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 15-28.
- 박혜원 · 강봉경(2004). 그림 Stroop과제에 나타난 조선족의 한글 및 한자어 처리에 관한 연구 : 한족 및 한국 아동의 수행과의 비교. *이중언어학회지*, 26, 145-161.
- 박혜원 · 박민정 (2005). 연변 지역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 가정학회지*, 43(3), 221-231.
- 박혜원 · 이사라 (2004).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부모, 또래, 교사가 미치는 영향 : 비교문화적 연구. *아동학회지*, 25(1), 181-194.
- 윤혜경 · 권오식(1998). 영어가 모국어인 성인의 인공철자로서의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읽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2), 74-87.
- 윤혜경 · 권오식 · 이도현 · 김선아 · 김연수(1999). 국어학습장애의 기본문제 : '해호화'인가 '이해'인가? *인간발달연구*, 6(2), 86-102.
- 윤혜경 · 박혜원 (2005a).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의 중국어, 한국어의 음절구조 지각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12(2), 43-56.
- 윤혜경 · 박혜원 (2005b). 중국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 윤혜경 · 박혜원 (2005c).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한글, 한자 기억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회지*, 28호 게재예정.
- 이광오(1995). 자모대체 수행에 나타난 글자의 내부구조와 음절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 실험 및 인지*, 7(1), 57-69.
- 이귀옥 · 이혜련(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15.
- 이귀옥 · 전효정 · 박혜원 · 강완숙 · 장미자(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15.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성인 · 전세일 · 배소영 · 이익환(2004). 한국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언어청각장애 연구*, 49-63.
- Fox, B., & Routh, D. K.(1984). Phonemic analysis and synthesis as word-attack skills. *Journal of Educa-*

- tional Psychology*, 76, 1059-1064.
- Goswami, U., & Bryant, P.(1990). Phonological skills and learning to read. Hillsdale, NJ : Erlbaum.
- Goswami, U., & Bryant, P.(1990). Phonological skills and learning to read. Hillsdale, NJ : Erlbaum.
- Liberman, I. Y., Shankweiler, D., Fischer, F. W., & Carter, B.(1974). Explicit syllable and phoneme segmentation in the young chil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8, 201-212.
- Perfetti, A.(1985). Reading abil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Yoon, H. K, Bolger, D., Kwon, O. S., & Perfetti, C. A.(2002). Subsyllabic Unit in Reading :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C. Perfetti(Ed.), *Precursors of Functional Literacy*. Netherland.
- Yoon, H. K, Bolger, D., Kwon, O. S., & Perfetti, C. A. (1999). The effect of language and script on the reading. Preceeding presented at the 2nd European Graduate School on Literacy Acqui-sition Precursors of Functional Literacy, The University of Nijmegen, Netherland.

---

2005년 4월 30일 투고 : 2005년 6월 26일 채택